(5) 기호유학의 산실-파주와 삼현(三賢)

강민우: 파주는 기호 유학의 소산이라고 하지요.

송익필: 기호 유학은 영남 유학과 더불어 한국 유학의 양대 산맥입니다. 경기도·충정·호남을 아우르는 유교문화권이 기호 유학입니다. 기호 학풍은 매우 개방적이고 다채로운 모습으로 전개됩니다. 불교·도가·양명학 그리고 서경석의 기학(氣學)까지도 폭넓게 수용하는 개방성을 보여줍니다. 김창협처럼 성리학 내에서도 이황의 '리' 이론을 수용하여 절충론이 나오기도 하고, 오직 리만을 중시하는 유리론(唯理論)적 사유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성리학·예학·실학·양명학·의리학 등이 다채롭게 전개됩니다. 이러한 기호 유학이 둥지를 튼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강민우: 한국 유학에서 '기' 철학의 선구자가 서경덕 선생인가요.

송익필: 한국 유학에는 '기'를 중시한 서경덕, '리' 중심으로 일본 유학의 원조가 된 이황, 현실 속에 실천을 강조한 이이, 양명학의 대부 정제두 등이 있습니다. 서경덕의 '기' 철학은 현상의 구체적이고 경험적인 개체의 사물을 지향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불멸한 본체인 '하나의 기'를 지향합니다. 그래서 '기' 철학의 선구자로 평가합니다.

강민우: 파주는 어떤 곳인가요.

송익필: 무엇보다 파주는 이이와 성혼, 그리고 저 세 사람이 우정을 나누며 학문하던 고장입니다. 그럼에도 파주가 조선 유학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몰라 안타깝기만 합니다. 경상북도 안동에 들어서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는 큰 간판이 보입니다. 안동은 나름대로 조선 유학의 본고장이 안동이고, 한국 정신문화의 중심적인 도시가 안동이라고 자부하는 곳입니다.

강민우: 영남 유학이 우리나라 정신문화의 중심으로 자리 잡은 것과 달리, 기호 유학은 제대로 홍보되지 않는다는 말씀이군요.

송익필: 사실 조선 유학은 기호 유학(또는 기호학파)과 영남 유학(또는 영남학파)의 양대 산맥으로 전개됩니다. 각기 형성된 배경과 전개된 양상이 다르며 학파적 특징도 다릅니다. 그럼에도 안동은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중심도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국국학진흥원이 있는가 하면 도산서원을 중심으로 선비수련원을 비롯해 많은 유교문화 연구, 교육, 관광 시설들이 즐비합니다. 반면 기호 지역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과 자긍심은 매우 부족합니다. 기호 유학의 중심지로는 파주와 충남·대전 지역이 거론될 수 있습니다. 파주가 기호 유학의 씨를 뿌린 곳이라면, 충남·대전 지역은 그 씨앗이 싹터 열매를 맺은 곳입니다. 이런 점에서 파주의 유교 문화적 위치는 매우 중요합니다.

강민우: 기호 유학을 파종하고, 심고 가꾸는 데 가장 중심적 위치에 있었던 인물이 바로 이이·성혼·송익필 삼현(三賢)이군요. 그들이 모두 파주 출신이라는 점은 주목할 만하고, 파주의

처지에서는 참으로 자랑스러운 일이겠어요. 물론 이이는 강릉에서 태어났지만, 덕수 이씨의 친가가 파주입니다.

송익필: 삼현 가운데 이이와 성혼은 이미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들과 달리 저에 대한 소개는 아직 미약한 듯합니다.

강민우: 2015년 구봉 송익필 기념사업회를 창립하여 파주에 본부를 두고 <구봉문화학술원>으로 고쳐 학술대회를 개최하기도 했지요. 또한 구봉 학술총서 제1집 『잊혀진 유학자-구봉 송익필의 학문과 사상』을 발간하기도 하고요.

송익필: 기호학파의 씨를 뿌린 이이·성혼·송익필의 삼현이 16세기 파주에서 활동했다면, 이들에 앞서 사화 시대에 파주에 연고를 갖고 활동한 선구적인 유학자가 성수침(成守琛, 1493~1564)과 백인걸(白仁傑, 1497~1579)이며, 또한 조선 초기 세종 시대 주역으로 유교적 정치 실현에 앞장섰던 명재상 황희(黃喜, 1363~1452)도 파주 인물입니다. 특히 성수침과 백인걸은 이이·성혼·송익필 삼현이 조선 유학의 대학자로 성장하는데 선하가 된 인물들입니다.

강민우: 사화(士禍) 시대에 대해서는 제가 간략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화'는 조선 전기의 선비들이 정치적 반대파에게 몰려 참혹한 화를 입은 사건입니다. 발생한 해의 간지를 따라 1498년(연산군 4)의 무오사화(戊午史禍), 1504년(연산군 10)의 갑자사화(甲子士禍), 1519년(중종 14)의 기묘사화(己卯士禍), 1545년(명종 즉위)의 을사사화(乙巳士禍)로 불립니다. 1970년대 이후, 현대 한국사 연구에서는 '훈구파'가 '사림파'를 탄압한 사건으로 평가합니다. 성수침은 '기묘사화'에 해당하는 듯합니다.

송익필: '기묘사화'는 1519년 음력 11월에 중종의 주도로 남곤·심정·홍경주·김전 등이 조광조·김식·김정 등 신진 사림의 핵심 인물들을 몰아내어 죽이거나 귀양 보낸 사건입니다. 중종반정으로 정치질서가 회복되면서 조광조 등의 신진사류가 점차 두각을 나타내고, 지치(至治)와 같은 이상 정치 실현에 주력하여 많은 성과를 거둡니다. 하지만 이상적 성군을 임금에게 강요하자 중종이 등을 돌렸고, <자격도 없이 공신에 봉해진 사람들의 작위를 박탈한다>라는 반정공신 위훈 삭제를 주장하여 훈구세력을 공격하자, 이들은 계략을 꾸며 조광조를 비롯한 신진사류를 제거한 것입니다.

강민우: 삼현 가운데 먼저 이이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해주세요.

송익필: 이이의 자는 숙헌(叔獻), 호는 율곡(栗谷), 본관은 덕수(德水)인데, 강릉 외가에서 출생합니다. 부친은 이원수(李元秀)이고 모친은 신사임당입니다. 파주 율곡촌은 아버지 이원수의 고향이고 선조들이 대대로 살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이이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파주 친가에 자주 드나듭니다. 이이는 1564년 29세에 명경시(明經試)에 합격하여 호조좌랑으로 임명된 이후 여러 관직을 지냅니다. 이이의 활동 무대는 대체로 서울·강릉·파주·해주입니다. 중앙관직에 근무할 때는 주로 서울에 살았고, 외가인 강릉과 처가인 해주에서도 살았습니다.

강민우: ‘명경시’는 조선시대 문과 초시에서 『논어』·『맹자』·『대학』·『중용』의 사경(四經)을 중심으로 시험을 보던 분과입니다. 조선시대 과거시험 가운데 생원이나 진사를 뽑는 소과(小科) 과거시험의 1단계 시험에 해당합니다.

송익필: 이이는 1572년 37살 때 병으로 사직하고 파주에 돌아와 성혼과 성리논변을 벌이고, 그 이듬해에 홍문관 직제학으로 임명되었으나 사퇴하고 8월에 파주 율곡으로 들어갑니다. 또 40살 때(1575) 병으로 파주 율곡으로 다시 돌아왔고, 그 이듬해 2월 다시 파주 율곡으로 돌아옵니다. 또한 1583년 6월 동인으로부터 탄핵을 받고, 파주 율곡으로 돌아왔다가 49세(1584)를 일기로 서울 대사동에서 별세하고, 파주 자운산(紫雲山)에 안장됩니다.

강민우: 오늘날 파주에는 이이의 묘소와 자운서원, 그리고 화석정(花石亭)이 남아있습니다. 2015년 이들 파주의 이이 유적이 국가사적으로 지정됩니다. 이이는 천재형의 철학자로, 강릉 출신입니다. 그러나 부친의 친가가 파주 율곡촌이었으므로 그는 어려서부터 부친을 따라 파주에 자주 왕래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혼을 만나고 송익필 선생을 만나 도의(덕)로써 사귄 것이군요.

송익필: 이이는 천성이 늘 나라 걱정과 백성 걱정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는 한가하게 현학(玄學)을 논하는 사변적인 철학자가 아닙니다. 비록 몸은 젊어서부터 약했지만, 현실에 대한 우환의식과 경세에 대한 관심은 남달랐습니다. 세 사람 중에 가장 현실정치에 적극적인 인물이 바로 이이입니다. 그래서 평생 진퇴를 거듭하면서, 한편으로는 학문에 전념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에 몸을 담았습니다.

강민우: 그래서 이이를 탁월한 경세가로 평가하는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이이는 경세에 탁월한 식견을 지닌 경세가입니다. 이이의 수많은 상소문은 경세 전반에 관한 개혁 사상과 현실 인식을 잘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이의 여러 상소문은 유형원이 『반계수록(磻溪隨錄)』을 저술할 때 가장 많이 참고한 자료 중의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이이의 개혁 사상 내지 경세 사상은 조선의 실학사상 발흥에 지대한 영향을 미쳐 조선 후기 실학의 선구로 평가받습니다.

강민우: 이이의 성리학 역시 그 독창성을 높이 평가한다지요.

송익필: 이이는 경세에도 밝았지만, 성리학의 이론에도 탁월합니다. 16세기 조선 성리학은 리를 강조하는 이황의 이학(理學)적 특징과 기를 강조하는 서경덕의 기학(氣學)적 특징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이는 리를 주로 하는 주리(主理)와 기를 주로 하는 주기(主氣)를 지양하고, 이기지묘(理氣之妙)의 입장에서 리와 기의 조화와 균형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이기지묘’의 다른 표현으로 기발이승일도(氣發理乘一途說)와 이통기국설(理通氣局說)을 주장하여 조선 성리학의 심화에 크게 기여합니다.

강민우: ‘기발이승일도’가 무슨 뜻인가요.

송익필: 이이의 '기발이승일도설'은 이황의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에 대한 비판적 대안으로 제시된 것으로, 이후 기호학파 또는 율곡학파의 기본 입장이 됩니다. 이 내용은 인간의 감정(情)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이론입니다. 인간의 감정은 사단과 칠정으로 구분됩니다. 이이는 사단과 칠정을 모두 '기가 발하고 리가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이것은 이황의 '사단은 리가 발하고 기가 타는 것이고(理發而氣隨之), 칠정은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다(氣發而理乘之)'라는 이론과 구분됩니다. 이이는 '리는 작용성이 없고 기는 작용성이 있다(理無爲 氣有爲)'는데 근거하여, 실제로 발동하는 것은 기이고 리는 기를 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합니다. 사단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는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하고 리가 타고 있는 것이라는 의미에서 '기발이승일도'를 말합니다.

강민우: 이황에 따르면, 사단은 리가 발한 것이고 칠정은 기가 발한 것이니 '이기호발설(理氣互發說)'이 됩니다. 그러나 이이는 사단도 기가 발한 것이고 칠정도 기가 발한 것이니 '기발일도설(氣發一途說)'이라 하는군요.

송익필: 이이는 경세와 성리학에 조예가 깊어 이황과 함께 조선 유학을 대표하는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그의 투철한 우환의식과 현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나라와 백성에 대한 근심과 걱정은 유학자의 전형, 참된 지성인의 표상입니다. 그리하여 이이는 '우리나라 18현(賢)'으로 추앙되고 기호 유학의 종주로 존경받습니다.

강민우: 성혼 선생에 대해서도 간략히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성혼은 성수침의 아들로 서울에서 태어납니다. 자는 호원(浩原), 호는 우계(牛溪)·묵암(默庵), 본관은 창녕(昌寧)입니다. 10살 때 아버지가 파주로 이사하면서 성혼도 아버지를 따라 파주에 가서 살게 됩니다. 17살 때에는 파주에서 백인걸의 문하에 들어가 『상서(尙書)』를 비롯한 유교 경전을 배우고 성리학을 배웁니다. 성혼은 윤원형(尹元衡)의 미움을 받아 안변(安邊)으로 유배되었다가, 풀려나 고향인 파주 월롱(月蘢)에 머물던 백인걸에게 아버지의 소개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강민우: 이이도 20살 때 금강산에서 돌아와 성혼과 함께 백인걸의 문하에 출입하였다지요.

송익필: 이 시기에 성혼은 이이나 저와 학문적 교유를 합니다. 이들은 직접 만나기도 했지만 편지 왕래를 통해 학문과 우정을 나누었는데, 우리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묶어 제가 『삼현수간(三賢手簡)』을 만듭니다. 27살 때 어머니를 여의고 30살까지 성혼은 3년간 어버이를 추모하는 일로 세월을 보냅니다.

강민우: 그러다가 우계 서원을 지어 학생을 가르쳤군요.

송익필: 36살 때(1570) 적성 현감을 사양하고 고향으로 돌아온 성혼은 후학 교육에 힘을 쏟기로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온 직후 죽우당(竹雨堂)의 동쪽에 3칸 정도의 우계 서원을 지어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조헌(趙憲)을 비롯하여 원근의 선비들이 성혼의 학덕을 듣고

배우기를 청하므로 서당을 만든 것입니다. 성혼은 임진왜란 때 고향을 떠난 기간을 제외하고는 죽을 때까지 약 24년 동안 우계 서실에서 후학을 가르쳤는데, 그 문도들이 무려 90여 명에 이릅니다.

강민우: 이이와 성혼은 평생 우정을 지키며 학문에 전념하여 두 분이 모두 문묘(文廟)에 종사 되는 영광을 가지게 된 것이군요.

송익필: 그렇지만 성혼과 이이는 기질과 학풍에 다소 차이를 보입니다. 이이가 매사 적극적인 성격이라면 성혼은 소극적입니다. 특히 현실에 대한 태도나 경세에 대한 참여에 있어서는 대조적입니다. 성혼은 부친 성수침을 비롯한 가학(家學)의 영향을 받아 은둔적 학풍을 쫓습니다. 이는 성삼문(成三問)의 죽음 이후 형성된 창녕성씨 가문의 가학풍으로 전해집니다. 아버지 성수침이나 성혼 자신도 벼슬에 나아가는 것을 꺼립니다.

강민우: 이이는 이 점에서 늘 불만이었다지요.

송익필: 이이가 자신의 이론에 확신을 갖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지만, 성혼은 겸양으로 일관합니다. 오히려 내면적인 자기 수양에 전념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영남 유학의 종주인 이황을 사모하고 그의 학문 태도를 배우고자 했습니다. 그러므로 많은 문인이 성혼을 존경하고, 그의 덕망을 우러렀던 것입니다. 이것은 이이가 말한 "학문의 이론에서는 내가 나을지 모르지만, 실천에 있어서는 성혼이 낫다"라고 고백한 데서도 잘 입증됩니다. 성혼은 이이처럼 성리의 이론적 계발보다는 성리의 실천에 치중합니다. 그의 문하에 많은 제자가 모여들어 파산문하(坡山門下)의 융성을 보여줍니다. 이이가 벼슬길에 나아가 정사에 참여하고 현실개혁에 기여했다면, 성혼은 많은 시간을 후학의 교육에 바칩니다.

강민우: 성혼의 학문은 그의 사위인 윤황(尹煌)에게 이어지고, 다시 윤선거(尹宣擧)-윤증(尹拯)으로 이어졌다지요.

송익필: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으로 노론과 소론이 갈라지고, 이는 다시 학파의 분열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하여 기호 유학(또는 기호학파)은 이이-김장생-송시열-권상하(權尙夏)-한원진(韓元震)의 율곡학파로 전개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성혼-윤황-윤선거-윤증의 우계학파로 전개되기도 합니다. 우계학파는 우계(성혼)의 일가들뿐만 아니라 당시 노론 계열에 반대하던 박세채(朴世采)를 비롯한 많은 유학자가 참여하여 다양한 인적 구성을 보입니다. 우계학파는 율곡학파와 달리 성리학에서도 절충적 경향을 보이며, 율곡학파보다 개방적 입장에서 학문을 합니다.

강민우: 송시열과 윤증의 갈등은 회니시비(懷尼是非)를 말하는 것인가요.

송익필: 송시열은 윤증의 아버지 윤선거와는 친구 사이이고, 윤증과는 스승과 제자 사이입니다. 송시열과 윤선거는 김장생의 문하에서 수학한 친구입니다. 역시 친구 사이였던 송시열과 윤휴가 현종 때에 예송(禮訟)으로 불화를 빚자, 윤선거가 그들을 화해시키려 하다가 도리어 송시열의 불만을 삽니다. 이에 송시열은 윤선거가 병자호란 때 강화도에서 죽지 않

은 일을 비난하고, 윤선거의 묘지명을 무성의하게 지음으로써 제자 윤증과 갈등을 빚습니다.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은 이후 정치적 견해와 입장에서도 온건파와 강경파로 나뉘어 소론과 노론의 붕당으로 이어집니다. 송시열이 살던 곳이 회덕(懷德)이고, 윤증이 살던 곳이 니성(尼城)이어서 그 첫 글자를 따라 회니시비(懷尼是非)라 부릅니다.

강민우: 이들의 갈등은 송시열의 강경파와 윤증의 온건파로 나뉘어 정책을 두고 서로 다른 생각을 보이면서 노론과 소론의 정치적 성향으로 나타났던 것이군요.

송익필: 송시열을 중심으로 한 노론계는 병자호란 후에 대의명분론에 따른 강경한 척화론(斥和論)으로 대응하지만, 윤증을 중심으로 한 소론계는 실리에 기초해 주화론(主和論)으로 대처합니다. 유학에서도 송시열이 의리적 학풍을 강조한다면, 윤증은 실속에 기초한 무실(務實)적 학풍을 강조합니다.

강민우: 윤증의 소론계가 경(敬)을 중심으로 한 마음공부에 주력하는 우계 학파를 주도해 나갔다면, 송시열의 노론계는 영남 유학의 이황에 대응하여 이이의 성리학 이론을 체계화하는 율곡학파를 주도해 나갔다고 할 수 있겠군요.

송익필: 그렇습니다. 학풍에 있어 윤증의 학맥이라 할 수 있는 우계 학파는 개방적이고 자유분방하지만, 송시열의 율곡학파는 율곡학의 계승과 주자학에 충실합니다. 윤증·송시열의 갈등과 노론·소론의 갈등은 여러 사건과 학문적 이념적 차이가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복잡한 양상으로 전개됩니다. 윤증과 송시열의 갈등 양상은 조선조 당쟁사의 관점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강민우: 유학이 유학자들의 가족 관계, 친구 관계, 정치 관계에 매우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군요. 이어서 송익필 선생님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소개해 주세요.

송익필: 저의 자는 운장(雲長), 호는 구봉(龜峰), 본관은 여산(礪山)이며, 서울에서 태어나 파주에서 살다가 만년에 충남 당진에 은거하다 그곳에서 생애를 마칩니다. 저는 신분 문제로 불우한 역경 속에서 살다가, 타고난 재주를 제대로 펴보지도 못한 불운아입니다. 저의 할아버지 송린은 중종 때 좌의정을 지낸 안당의 노비이자 이복 딸인 감정과 결혼하여 송사련을 낳습니다. 저의 할머니 감정은 <안당의 아버지>안돈후의 노비 중금(重今)의 딸이었기 때문에 결국 서얼의 신분에 놓이게 됩니다.

강민우: 1521년 선생님의 아버지 송사련은 안당의 아들 안처겸 등이 당시 정권의 실세이던 남곤·심정 등을 제거할 것을 도모한다고 고발하여, 안당과 안처겸 등 안씨 집안과 수십 명의 선비들이 희생되는 '신사무옥'을 일으킨 것이군요.

송익필: 그러나 60년 후 1586년에 송사련이 사실이 아닌 일을 거짓으로 꾸미어 고발한 것임이 밝혀지고 안당의 신원이 이루어지게 됨에 따라, 이미 죽은 송사련의 관작이 삭탈되고 저의 집안은 노비의 신분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안씨 집안에서는 저까지 노비를 삼겠다고 하자, 저는 은둔과 도피 생활을 하게 되어 정철·김장생·이산해 등 지인들의 보호를 받으며

간신히 연명합니다. 1593년 유배에서 풀려나 1596년 충남 당진 마양촌에 정착하여 살면서 제자들을 가르치다가 66세(1599)로 세상을 떠나 당진 북면 원당동에 묻힙니다.

강민우: 성혼이나 이이와는 어떤 관계였나요.

송익필: 저는 서울에서 태어났지만, 파주에서 부모님을 모시고 살았습니다. 21살 때 동년 연배의 이이·성혼과 사귀어 평생 우정을 변치 않았습니다. 저는 이이·성혼이 죽고 난 후 만년에 아들 취대를 시켜 우리 세 사람이 주고받은 편지를 모아 『삼현수간』이라는 이름의 책자를 만들었는데, 모두 파주를 배경으로 우리들의 우정 이야기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신분적 제약 때문에 과거에 금지당해 평생 벼슬에 나아갈 수 없었겠군요.

송익필: 그래서 저는 27살 때부터 파주 교하읍 심학산 구봉 자락에 서당을 차리고, 김장생을 비롯한 많은 제자를 가르칩니다. 이이·성혼과는 다른 삶을 살았는데, 50대 이전은 주로 파주를 중심으로 살았고, 그 이후는 은둔·도피 생활을 하다 만년에 충남 당진에서 제자를 가르치다 세상을 뜹니다. 저의 제자가 바로 김장생·김집이라는 점에서 이이와 함께 율곡학파의 씨를 파종한 셈입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삼현 가운데 가장 잊힌 인물인 듯합니다. 성리학에 있어서도 이이 못지않은 평가를 받았는데 말이죠. 이이가 23살 때 「천도책(天道策)」으로 장원급제하여 선비들이 그 내용을 묻자, 이이는 "나보다 송익필이 성리에 더 조예가 깊으니 그에게 물어보라"라고 했다지요. 선생님은 일찍이 『태극문(太極問)』을 지었는데, 이는 이이·성혼은 물론 이황조차 성리학에 관한 전문적인 저술이 없던 시기입니다. 이이는 자신과 성리학의 상대가 될 만한 사람은 오직 선생님이라고 평가했다지요. 그만큼 선생님은 성리학에 있어서 조예가 깊었고요. 또한 선생님은 예학의 선구자이기도 하죠.

송익필: 우선 '동방 예학의 종장'으로 추앙받는 김장생과 그의 아들 김집이 저의 문하에서 예학을 배웠습니다. 그들이 이이의 정통으로 알려졌지만, 사실은 저의 학문적 영향이 매우 큽니다. 제가 쓴 『가례주설(家禮註說)』은 우리나라 예설의 선구적 저술입니다. 저의 예학은 이이·성혼에 비해 높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것은 「예문답」에서 보여준 저의 예학에 대한 식견 때문입니다. 저는 이이의 『격몽요결(擊蒙要訣)』의 「속례(俗禮)」 부분은 한 가문의 예설로는 의미가 있을지 몰라도, 한 나라의 예로는 부족하다고 평가합니다.

강민우: 선생님은 경세에도 조예가 깊다지요. 신분상의 문제로 벼슬길에 나아갈 수 없었기 때문에 친구 이이를 통해 그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고자 했다지요. 서기(徐起)는 자신의 문하생들에게 "너희들이 제갈공명의 모습을 알고자 한다면 모름지기 송익필을 보라. 송익필이 제갈공명과 흡사할 뿐만 아니라 제갈공명이 송익필과 흡사하다"라고 했고요. 선생님의 경세적 안목과 역량을 짐작할 수 있을 듯합니다.

송익필: 저는 이이에게 국방에 관해 자문역할을 했습니다.

강민우: 이렇게 볼 때, 파주는 조선조 기호학파의 산실임이 분명합니다. 이이·성혼·송익필이 낳고 자라고 활동한 곳이 바로 파주입니다. 이들에 의해 조선조 기호 유학이 융성하게 전개됩니다. 그 양대 산맥이 율곡학파와 우계학파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인물이 바로 이이·성혼·송익필입니다. 경북 안동이 '한국 정신문화의 수도'라고 자처하듯이, 파주도 '우리나라 유교문화의 산실'이라는 높은 자긍과 문화적·역사적 사명감을 강하게 가져야 하겠군요.